

종합문서: 성경만을기준으로본복음주의기독교와신약기독교사이 의모순

개신교내의광범위한현대운동인복음주의교회는개인적회심, 성경적권위, 전도, 그리고중중보수적인성경해석을강조합니다. 20 세기에부흥운동, 선교활동, 그리고모더니즘에대한대응을통해두드러지게등장한복음주의교회는개인적인신앙경험, 교리적순수성, 그리고문화적참여를우선시합니다. 그러나요한계시록 2-3장에언급된일곱교회와비교해볼때, 복음주의교회는라오디게아교회 (요한계시록 3:14-22) 와가장유사합니다. 이러한비교는오직성경적묘사만을바탕으로하며, 영적상태와경고의유사점을강조합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 미지근하여차지도않고뜨겁지도않은 "(요한계시록 3:16) 교회로묘사되며, 자기만족에빠져 " 나는부자이니재산이많으니아무것도부족함이없다 "(요한계시록 3:17) 고말합니다. 그러나예수님은그들을 " 비참하고가련하고가난하고눈멀고벌거벗은 " 자들이라고책망하시며, " 불로정련한금 "(참된영적부), " 흰옷 "(의), " 눈에바를안약 "(분별력) 을사라고권면하십니다. 이는현대복음주의가지닌잠재적인합정을반영합니다. 물질적성공, 대규모교회, 그리고프로그램적성장에만집중하는경향은영적인미온성을조장하고, 그리스도에대한의존보다자기의존을심화시키며, 겉으로드러나는번영속에서더깊은필요를간과하게만들수있습니다. 라오디게아교회처럼, 복음주의자들은내면의정체에빠지기쉬운데, 이는예수님께서 " 열심을내어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19) 고하신말씀, 즉친밀한교제를위해문을열라는말씀 (요한계시록 3:20) 을떠올리게합니다. 이러한비교는정죄가아니라성경적인경고로서, 복음주의자들이신약성경에서요구하는열렬하고겸손한믿음에귀기울이도록일깨워주는것입니다.

이문서는특정복음주의적관행, 구조및강조점이신약성경에묘사된초기교회의모델과어떻게다른지살펴봅니다. 복음주의는성경에부합하고자하지만, 역사적, 문화적발전으로인해신약성경의패턴과대조되는요소들이생겨났습니다. 분석은주제별로구성되어있으며, 명확성을위해세부항목을제시하고, 직접적인성경구절을인용하여뒷받침합니다.

1. 교회지도력과권위: 위계적전문성대복수적이고성령으로기름부음받은장로직

복음주의교회는흔히담임목사한명, 신학대학원출신의전문가, 유급직원으로구성된하향식구조를가지고있어권위가중앙에집중되고성직자와평신도사이에분열이생깁니다.

- 신약과의대조: 신약은지역교회에서여러명의장로(감독)가공동으로지도력을발휘하도록권장하며, 이들은정식교육이나직함보다는인품과성숙도를기준으로선출됩니다. 디도서 1 장 5 절은 "각 마을에장로들을세우라 "고명령하며복수형을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4 장 23 절은 "그들이각교회에장로들을세웠다 "고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3 장 1-7 절과디도서 1 장 6-9 절은학력에대한언급없이 "흠없는 "성품, 가정관리능력, 손님접대능력과같은자질을강조합니다. 이러한평등주의적모델은베드로전서 5 장 3 절에서경고하는것처럼타인을지배하려하지않고, "맡겨진자들을다스리지말고양떼의본이되라 "는가르침을따릅니다.
- 더나아가복음주의자들은유명목사나교단위계질서를숭상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마태복음 20 장 25-28 절에나오는예수님의가르침과모순됩니다. "너희는이방인의지도자들이백성을다스리는것을알지만...너희는그렇지않다. 너희가운데서큰사람이되려는자는섬기는자가되어야한다."
- 시사점: 이는신약성경의비판서, 예를들어디오트레페스가권력을장악하고반대자들을추방하는요한삼서 9-10 장에서볼수있듯이, 견제받지않는권력으로이어질수있다.

2. 교회모임: 성과중심예배 vs. 모든구성원이참여하는상호작용적예배

현대복음주의예배는종종콘서트나강연과유사한형태를띠는데, 청중은수동적이고, 전문음악가들이연주하며, 미리준비된설교가진행되어자발적인참여가제한됩니다.

- 신약시대의대조: 모임은모든신자들이덕을세우기위해참여하는형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 장 26 절은 "너희가모일때에각사람이찬송이나교훈의말씀이나게시나방언이나통역을가지고있으니, 모든것을교회를세우는데쓰라 "고말합니다. 골로새서 3 장 16 절은 "그리스도의말씀이너희가운데풍성히거하게하라. 그리하여너희는모든지혜로시편과찬송과영의노래로서로가르치고권면하라 "고권면합니다.
- 더나아가차이점: 신약성경은사도행전 20 장 7 절에서바울이토론형식(그리스어: *dialogomai*)으로 "계속해서이야기한 "것처럼대화와질문을포함하고있습니다. 이는복음주의의일방적인소통방식과대조를이루며, 마태복음 23 장 8-10 절에서예수께서위계적인칭호를꾸짖으신말씀과도일맥상통합니다. "너희는랍비라불리지말라. 너희에게는선생이한분뿐이고너희는다형제

나라."

- 시사점: 수동적인방식은영적은사를억누를수있습니다. 이는에베소서 4 장 11-16 절에서말하는바와 상반됩니다. 에베소서 4 장 11-16 절에서는준비된성도들이교회의성장을위해봉사하는일을한다고 가르칩니다.

3. 구원과제자도: 개인주의적 " 죄인의기도 " 중심 vs. 공동체적세례와지속적인삶

복음주의자들은공동체와동떨어진채순간적인개인적결정이나기도를통해구원을얻는다는점을강조합니다.

- 신약성경과의대조: 구원은즉각적인세례와그리스도의몸안으로의통합을수반합니다. 사도행전 2 장 38-41 절은회개, 세례, 그리고성령을받는것을연결하며, 새신자들이공동체에합류하는것을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 장 42-47 절: " 그들은사도들의가르침과교제와떡을떼는것과기도에전념했습니다... 모든신자들이함께있었습니다 "). 로마서 6 장 3-4 절은세례를그리스도의죽음과부활과의연합으로묘사합니다.
- 더나아가차이점: 신약성경은고립된경험이아닌지속적인공동체적제자훈련을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 장 24-25 절은모임을소홀하지말라고경고하고, 갈라디아서 6 장 2 절은서로의 짐을나누어지라고명령합니다. 이는야고보서 5 장 16 절에서처럼 " 서로죄를고백하고서로를위해기도하십시오 " 라고말하며책임을간과할수있는복음주의적개인주의에반하는것입니다.
- 시사점: 구원을기도로만축소하는것은신약성경에서말하는전인적인변화를무시하는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 장 17 절에는 " 누구든지그리스도안에있으면새로운피조물이라 " 고기록되어 있습니다.

4. 영적은사와성령의역할: 은사중단론또는제한 vs. 적극적인추구와실천

많은복음주의자들은은사적은사를사도시대나개인적인용도에국한시키거나, 그지속성을부인합니다.

- 신약과신약의대조: 은사는모든신자를위한것이며지속적인덕을세우는데쓰입니다. 고린도전서 12 장 4-11 절은다양한은사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방언) 를 " 공동의유익을위하여 " 열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4 장 1 절은 " 사랑의길을따르고성령의은사, 특히예언의은사를간절히사모하라 " 고권면하며, 14 장 39 절은 " 방언을금하지말라 " 고덧붙입니다. 예언은특히성령의감동으로주어지는계시로서, 믿음을강화하고격려하며위로하는것을의미

합니다 (고린도전서 14:3). 이는 가르침과는 구별되며,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29-30).

- 추가적인 차이점: 성령 세례는 회심 이후에 주어지는 별개의 권능 부여입니다 (사도행전 8:14-17; 19:1-6). 이는 회심과 성령 충만을 동일시하는 복음주의적 관점과 상반됩니다. 로마서 12:6-8 은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예언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9-21: "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고 모두 시험해보십시오 ");
- 함의: 역제는 신체 기능을 저해하며, 모든 신자가 예언과 같은 은사를 추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5. 믿음과 행위: " 오직 믿음 " 에 대한 지나친 강조 vs. 행위로 드러나는 통합적인 믿음

종교개혁 신학에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신앙과 행위를 분리하여, 후자를 단순한 증거로 간주합니다.

- 신약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불가분하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 장 17-26 절은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며, 사람의 의로움은 행함으로 말미암고 믿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 장 21 절은 " 나에게 ' 주여, 주여 '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 " 라고 경고합니다.
- 추가적인 차이점: 심판에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로마서 2:6-8: 하나님께서 "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 요한계시록 20:12-13: "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 받으리라 "); 이는 에베소서 2:8-10 의 "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받았다 " 는 구절과 균형을 이룹니다.
- 함의: 행위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요한복음 14 장 15 절의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 는 말씀에 위배된다.

6. 성경 해석과 권위: 엄격한 무오성 vs. 그리스도 중심의 점진적 계시

복음주의자들은 흔히 신약과 구약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신약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무오설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 신약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을 점진적으로 재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5 장 17-48 절은 율법을 완성하면서 계명을 강조합니다 (예: " 너희는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히브리서 7 장 18-19 절은이전의규례가 " 약하고무익하다 " 고선언하며더나은소망을 제시합니다.

- 추가적인차이점: 신약성경은율법의문자적의미와성령의의미를대조합니다(고린도후서 3:6: " 율법은죽이고성령은살린다 "); 갈라디아서 3:23-25 는율법을그리스도를맞이할때까지의수호자로봅니다.
- 시사점: 진보를무시하면율법주의로이어질수있으며, 이는골로새서 2 장 16-17 절의말씀, 즉 " 그리스도가가리키는그림자 " 에어긋납니다.

7. 오류와분열에대한대응: 교회이탈또는분열 vs. 인내심있는투쟁과일치

복음주의자들은의견차이로분열되거나탈퇴하여새로운그룹을형성하는경우가빈번하다.

- 신약성경과의대조: 문제에대해서는인내심을갖고내부적으로해결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3 장은결함있는교회들을비판하면서도내부적인회개를촉구합니다(예: 티아티라가이세벨을용인했지만사랑으로칭찬받은경우). 유다서 3 절은믿음을위해싸우라고권면하고, 디모데후서 2 장 24-25 절은온유한훈계를가르칩니다.
- 더나아가차이점: 일치가최우선이다(요한복음 17:20-23: " 그들이하나가되게하소서 "); 에베소서 4:3: " 성령의일치를지키기위하여힘쓰십시오."
- 결론: 분열은빌립보서 1 장 27 절, " 믿음을위하여한마음으로싸우라 " 는말씀과모순됩니다.

8. 선교와복음선포: 개인전도중심 vs. 전인적하나님나라확장

복음주의자들은영혼구원과천국으로향하는메시지를우선시하는경향이있으며, 사회정의를소홀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신약성경과의대조: 예수님은하나님나라를포괄적으로선포하셨습니다(마가복음 1:15: " 하나님나라가가까이왔느니라 "); 누가복음 4:18-19 에는가난한자들을위한기쁜소식, 갇힌자들을위한자유, 맹인들을위한시력회복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 추가적인차이점: 사도행전 4:32-35 는경제적나눔을보여주고, 야고보서 1:27 은종교를고아와과부를돌보는것으로정의합니다.
- 시사점: 편협한시각은마태복음 25 장 31-46 절, 즉자비로운행위를 통한심판을간과하게한다.

9. 부와번영: 물질주의수용 vs. 부에대한경고

일부복음주의자들은번영신학이나부유함속에서안락함을추구합니다.

- 신약성경과의대조: 예수님은부의위험성을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23-24: 부자는천국에들어가기어렵다; 디모데전서 6:9-10: 돈을사랑하는것은악의뿌리이다).
- 추가적인차이점: 사도행전 2:44-45: 신자들은궁핍한사람들을돕기위해소유물을팔았습니다.
- 함의: 자만심은라오디게아교회의자급자족정신을반영한다 (요한계시록 3:17).

10. 종말론: 환란전휴거강조 vs. 환란을통한인내

복음주의자들은종종환란으로부터의탈출을가르칩니다.

- 신약성경과의대조: 신자들은시련을견뎌낸다 (마태복음 24:29-31: 환란후의모임; 요한계시록 7:14: 큰환란에서나온성도들).
- 추가적인차이점: 데살로니가후서 2:1-3: 배교와불법의사람이나타나기전에는모임이없습니다.
- 결론: 현실도피는인내를저해한다 (야고보서 1:12).

11. 정치적개입: 강대국과의동맹 vs. 왕국분리

복음주의자들은정치적영향력을추구할수도있다.

- 신약성경과의대조: 예수님의나라는 " 이세상에속한것이아닙니다 "(요한복음 18:36). 로마서 13:1-7 은권위에복종하면서도하나님을최우선으로여깁니다 (사도행전 5:29).
- 추가적인차이점: 고린도후서 6:14-17: 믿지않는자와명예를같이메지말라.
- 함의: 타협은우상숭배의위험을내포한다 (요한계시록 13 장의경고).

이재구성된문서는신약성경의우선순위인공동체, 성령의존 (명확히설명된예언적은사포함), 그리고전인적순종을강조하며, 이러한가치들과의조화를위한성찰을촉구합니다.